

“성실 훈련하고 일찍가자” 군기잡힌 예비군

“예비군훈련=휴가”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죠. 신병훈련소에 재입소한 줄 알았더니...

예비군 훈련이 진행된 지난 1일 담당관 장평면 광주 서남구 예비군훈련장에선 324명의 예비군들이 오(伍)와 열(列)을 맞춘 채 교관의 시가지 전투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었다.

교관의 지루한 설명이 계속되는데도, 예비군들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보이지 않았다. 파마 또는 염색한 머리 스타일만 없었던 마치 신병훈련소의 신병을 보는 듯한 작각을 일으킬 정도였다.

교관이 설명을 마치고 예비군 20명에게 공포탄을 건네자 전방에선 M-60 기관총에서 쏟아내는 공포탄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예비군들은 당황한 기색 없이 자신의 임무를 외운 뒤 분대장 지휘 아래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다음 차를 기다리던 예

■ ‘조기퇴소제’ 도입 담당 창평 예비군훈련장 가보니

혈령한 옷차림·느슨한 군기 찾아볼 수 없어 일사분란한 움직임...마치 신병훈련소 온 듯

비군들은 이를 진지하게 지켜봤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게임을 하거나 잡담하는 모습은 아예 찾아볼 수 없었다.

예비군 훈련장의 모습이 180도 달라졌다. 과거엔 예비군들이 “어이~동생, 내 총이 사라졌어. 어디에 나뉘는지 기억이 안 나. 빨리 찾아줘”라며 교관의 속을 태우던, 현재는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지난 2010년부터 도입된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된 ‘조기 퇴소제’ 때문. 예비군 훈련의 교육과정은 모두 6~7개 과목인데, 각 과목별로 점수를 종합한 뒤 성

적이 상위 20%~30% 안에 들면 1~2시간 조기 퇴소를 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예비군들의 훈련 태도가 바뀌었다. 과거 예비군들은 훈련 내내 M-16 소총을 바닥에 끌고 다니다가 교관이 이를 보고 지적하면 “아마~후배님 왜 그래... 나 집에 가버린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또 활동모를 빼먹하게 쓰거나 전투복 상의를 풀어헤친 뒤 가슴을 흰히 드러내놓고 다니는 가 하면 전투화 끈을 느슨하게 풀 뒤 끌고다니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는 이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훈련기간 조기 퇴소를 하기 위해선 과목별로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데, 점수를 매기는 교관에게 자칫 잘못보였다간 조기 퇴소는 커녕 혹독한 훈련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각 과목별 점수가 아무리 좋더라도 복장이 불량하면 조기 퇴소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예비군 스스로 복장을 단정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휴대전화 사용도 눈에 띄게 줄었다. 입소 당시 휴대전화를 반납하면 조기 퇴소를 위한 추가 점수를 받기 때문이다. 또 훈련 중 휴대전화를 꺼내들면 벌점이 부과되고 두 차례 이상 적발되면 바로 귀가 조치된다. 이날 휴대전화로 알림을 일으킨 예비군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한편, 이날 조기 퇴소 대상자는 예비군 324명 중 102명이었다.

/박기우 수습기자 pboxer@kwangju.co.kr



7일 두암3동 새마을 부녀회와 통장단 협의회가 소외이웃을 돕기 위해 주민센터 주차장에 여성리류 바자회를 연 가운데 주민들이 의류를 고르고 있다. 오는 11일까지 진행되는 바자회 판매수익금은 이웃돕기 기금으로 쓰여진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출판사 허락없이 책 냈다면 저작권법 위반일까

광주지법, 저자 동의 받았다면 침해 인정 어려워 ‘무죄’ 선고

저작권을 소유한 출판사 허락 없이 원래 책 저자의 동의를 받아 동일한 내용의 다른 책을 만들어 배포했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까.

광주지법 형사 1단독 최현중 판사는 저작자인 출판사의 복제·배포에 대한 허락 없이 내용이 동일한 다른 이름의 책을 인쇄·배포해 저작권권을 침해한 혐의

(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행위가 원래 책을 쓴 저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으로 믿은 상태에서 저자 허락 없이 인쇄를 의뢰, 배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책 저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새로운 책에 쓰일 내용을 받은 점, 출판사의 저작권 보유 여부를 모른 상태에서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 자신의 행위가 출판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도 없어 “무죄”라고 판시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5 몰림 15:23
해질 19:50 달림 01:27

바깥 다가는 태풍!

태풍의 직·간접 영향권에 들어 비,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지역별 날씨 (℃)

| | | | | | |
|----|---|-------|-----|---|-------|
| 광주 | 비 | 23/28 | 보성 | 비 | 23/27 |
| 목포 | 비 | 22/27 | 순천 | 비 | 22/27 |
| 여수 | 비 | 23/27 | 영광 | 비 | 22/28 |
| 나주 | 비 | 22/28 | 진도 | 비 | 23/29 |
| 완도 | 비 | 23/28 | 전주 | 비 | 23/30 |
| 구례 | 비 | 21/28 | 군산 | 비 | 23/29 |
| 강진 | 비 | 23/29 | 남원 | 비 | 22/29 |
| 해남 | 비 | 23/29 | 홍산도 | 비 | 21/26 |
| 장성 | 비 | 22/28 | | | |



◇바다 날씨

| | | 오전 | | 오후 | |
|----|-----|----------|---------|----------|---------|
| | | 평균 파고(m) | | 평균 파고(m) | |
| 서해 | 앞바다 | 동~남동 | 0.5~1.5 | 북동~동 | 1.0~2.0 |
| 남해 | 앞바다 | 동~남동 | 1.0~2.0 | 북동~동 | 2.0~3.0 |
| 남해 | 서부 | 동~남동 | 1.0~2.0 | 북동~동 | 1.5~2.5 |
| 남해 | 남부 | 동~남동 | 2.0~4.0 | 동~남동 | 3.0~6.0 |

◇물때

| 목포 | 밀물 | | 썰물 | |
|----|-------|-------|-------|-------|
| | 09:39 | 03:12 | 22:43 | 15:30 |
| 여수 | 11:01 | | 04:52 | |
| | 00:00 | | 18:05 | |

◇주간 날씨

| 9(수) | 10(목) | 11(금) | 12(토) | 13(일) | 14(월) | 15(화) |
|-------|-------|-------|-------|-------|-------|-------|
| ☁ | ☁ | ☁ | ☁ | ☁ | ☁ | ☁ |
| 25/28 | 25/29 | 23/29 | 23/29 | 23/27 | 23/29 | 23/30 |

◇생활지수

| | |
|-----|----|
| 식중독 | 82 |
| 운동 | 40 |
| 빨래 | 60 |

광주 지산초 북분교 10년만에 광주북초등학교 승격 하계

맞춤 특성화 교육 학생·학부모 호응 전교생 수 14명서 102명으로 늘어

농촌 학교 성공모델 주목

전교생이 14명에서 102명으로 늘어나면서 분교에서 본교로 승격돼 그 비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드는 농촌 작은 학교의 성공 모델로 주목된다.

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시 북구 효령동에 있는 광주 지산초등학교 북분교가 내년 3월1일자로 광주북초등학교(교장 김동일)로 승격된다. 이 학교는 광주시 외곽의 농촌학교로 지난 1935년 지산공립보통학교 수곡간이학교로 개교했다가 1996년 광주북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꿨다. 이후 학생 수가 계속 줄면서 2005년 지산초교에 흡수, 북분교로 전락했다. 이듬해에는 학생 수가 14명까지 줄어 학교 문을 닫을 지경에 처했다.

하지만 북분교는 폐교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 초미니 학교가 되면서 작은 학교에 맞는 특성화 교육과정,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수업도 토론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인근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었고, 학생

수도 늘기 시작했다.

2006년 14명에 불과했던 전교생 수는 다음해부터 증가해 2007년 33명, 2008년 48명, 2009년 78명, 지난해 92명, 올해 102명까지 늘었다. 오히려 전교생 수가 60명 뿐인 본교 지산초보다 2배 가까이 많아졌다.

학교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크게 울려 퍼지자 2010년부터 학부모와 교원, 동문, 지역 주민들이 본교 승격을 요구했다.

광주시교육청도 2019년에는 학생 수가 137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 본교를 본교로 승격시키기로 결정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다음달 시의회에 승격 동의안을 제출하고 본교 승격에 따른 교원과 일반직을 배치하는 한편 각종 학교 시설도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도시 속 농촌학교지만 특색있는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의 요구를 충족시켜 호응을 얻었다”며 “농촌 작은 학교의 성공사례로 확산시킬 방침이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기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기복중알까 특수가발 별매(윈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X,핀X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大山프리모가발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땀쟁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산구 381-0061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